

# 동사이동과 고대영어의 어순

이 필 환

## 0. 머 리 말

이 논문의 목적은 지배결속이론과 지배결속이론의 후속이론으로 Chomsky(1992)에 의해 제안되고 있는 ‘최소이론’의 기본 개념을 살펴보고<sup>1)</sup> 이를 독일어, 네덜란드어, 고대영어 등 서 게르만어(West-Germanic Languages) 통사구조에 적용시켜 그 이론의 정당성을 점검해 보고자 함이다. 특히 ‘모든 문법이론은 형태론적 자질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함’이라는 가정을 중점적으로 살펴러 하며 여러 언어중 특히 고대 영어를 주된 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 1. 고대영어의 어순

### 1.1. 고대영어의 기본 어순

고대 영어의 어순에 관하여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정은, 고대영어 문헌이 보여주는 불규칙하고 비체계적인 표면 어순에도 불구하고 고대영어는 SOV라는 기본 어순을 가지고 있으며 이 기본 어순에 별도의 문법규칙이 작용하여 다양한 표면 어순이 도출된다는 점이다.<sup>2)</sup>

이와 같은 가정은 아래 예문이 보여 주듯이 고대영어에서도 종속절에서는 동사가 목적어 다음에<sup>3)</sup> 보다 정확하게는 동사구 내지는 문장의 마지막 위치에 나타나고 있음에서 출발한다.<sup>4)</sup>

- (1) a. ...*gif hie him pæs rices upon.*  
‘...if they him the Kingdom granted.’  
(=if they grant him the kingd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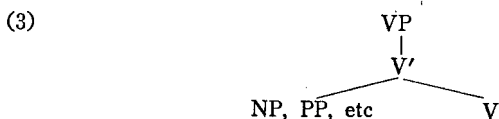
- 1) ‘최소이론’이란 명칭은 아직 학계에서 널리 받아들여져 보편화된 용어는 아니지만 Yang(1992)의 제안에 따라서 임시로 사용한다. V2 현상은 기본어순(basic word-order)이 SVO인 북 게르만어와 어순이 SOV인 서 게르만어에서 모두 나타나지만 여기서는 SOV 기본어순을 보여주는 서 게르만어 그중에서도 고대영어를 주로 다룬다.
- 2) 기본어순, 표면어순이란 말은 종래까지는 각각 심층구조 혹은 D-구조에서의 어순을 의미하거나 표면구조 혹은 S-구조에서의 어순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별 무리가 없었으나 D-구조, S-구조 혹은 그 이전의 심층구조와 표면구조 같은 층위의 구분이 없어진 Chomsky(1992)의 ‘최소이론’에서는 기본어순이란 사전에서 어휘항목이 선택(Select- $\alpha$ )된 다음 만족(Satisfy)된 상태이고 표면어순이란 여기에 이동(affect- $\alpha$ )과정과 문자화(Spell-Out)과정이 적용되어 음성으로 실현되어 해석이 가능하게 된 상태를 의미한다.
- 3) 목적어라기 보다는 동사의 보충어(complement)로 나타날 수 있는 NP, PP, AP나 동사구속의 수식어구를 통털어 표현한다.
- 4) 종속절에서도 외재화 변형(Extraposition)때문에 동사뒤로 이동한 요소들이 나타나는 예들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도 기저 어순에서는 동사가 마지막에 있는 것으로 본다.

- b. ...*pæt ic pis boc of Ledenum gereorde to Englische*  
 '...that I this book from Latin language to English  
*spræce awende.*  
 tongue translate.'  
 (=that I translate this book from the Latin language to English tongue.)
- c. ...*and heora an sona his swurd ateah.*  
 '...and of-them one immediately his sword drew.'  
 (=and one of them instantly drew his sword.)

이 접은 네델란드어나 독일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 (2) a. ...*dat Wim het boek koopt.*  
 '...that Wim the book buys.' (Dutch)
- b. ...*daß Karl das Buch kauft.*  
 '...that karl the book buys' (German)

따라서 종속절에서의 어순만으로는 다음과 같은 구조가 설정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예에서 보듯이 주절에서의 상황은 다르다. 주절에서는 동사가 문장의 마지막에 오지 않고 현대 영어에서 처럼 문장의 두번째 자리를 차지한다. 그런데 주절에서 시제 동사(finite verb)는 문장의 두번째 구성요소로 오지만 문장의 첫번째 요소는 현대영어와는 달리 주어뿐만 아니라 어떤 성분이라도 무방하다.

- (4) a. *Se swicola Herodes cwæd to tungel-witegum.*  
 'the treacherous Herod spoke to the star-wiseman.'  
 (=the treacherous Herod spoke to the astrologers.) [subject]
- b. *eall pis aredap se reccere swipe ryhte.*  
 'all this arranges the ruler very rightly.'  
 (=the ruler arranges all this very rightly.) [accusative object]
- c. *Swelcum ingedonce gerist pæt...*  
 'Such a disposition suits that...'  
 (=It is fitting for such a disposition that...) [dative object]
- d. *py ilcan gearre drehton a hergas on East englum and...*  
 'the same year harried the armies in East Anglia and...'  
 (=In the same year the armies harried in East Anglia and...) [adverbial]

위의 예문이 보여주는 SVO, OVS, AdvVS 등의 다양한 어순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에 고대 영어는 격어미(case-ending)가 문법기능(grammatical functions)을 모두 표시해 주고 있으므로 어순이 자유로운 언어라는 가정이었다. 예를 들어(4d)에서 동사 *drehton*의 어미 *-on*은 과거 복수 표지이며 복수명사어미 *-as*를 포함한 *hergas*와 일치하므로 *py ilcan gearre*가 주어로 오인될 여지는 없는 것이다. 또 (4c)에서도 문장의 처음에 나오는 *swelcum ingedonce*

이 복수 여격어미 *-um*을 포함하고 있어서 주어로 오인될 소지는 없는 것이다.

고대영어에서의 문장구성요소(constituents)가 매우 불규칙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최근 지배결속 이론내에서도 몇몇 학자들은(e.g. Hale(1982))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등 어순이 비교적 자유로운 언어와 마찬가지로 고대영어 같은 서 게르만어를 아예 비 성층언어(non-configurational languages)로 분류하기도 한다. 그런 경우에는 VP라는 구성요소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는데 이 논문에서는 VP내의 구성 성분 사이의 다양한 어순에 대해서는 '뒤섞기'(scrambling)가 적용되었다는 보다 보편적인 견해를 받아들이고 VP를 인정하도록 한다.

예문(4)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문장의 첫 위치가 주어만을 위한 위치는 아니라는 점이다. 이런점 때문에 주절에서도 동사는 (3)에서 처럼 동사구후치(VP-final)위치에서 생성되어 문장의 두번째 위치로 이동되었다고 가정이 되고 있으며 이 이동은 V2-이동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다. 그리고 문장의 첫요소 역시 기저생성된 위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요소가 이동해 옮겨와 있는 것이다. 이점은 (4a)와 같이 정상적인 주어 동사의 어순인 문장도 마찬가지로여서 결국 주어동사가 모두 무위이동(vacuous movement)을 한 셈이 된다. 물론 이 V2이동은 (1)의 예문에서 처럼 종속절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

## 1.2. SOV 어순과 SVO 어순

Koster(1975)는 화란어에 있어서 기본 어순은 SOV임을 설명하는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하고 있다.

현대 영어에서는 소사이동(Particle movement)규칙이 있는데 이 규칙은 (5)에서 보듯이 수의적(Optional)으로 적용되며 또 (6)에서 보듯이 반드시 첫번째 명사 다음으로만 소사를 이동시킨다.

- (5) a. He *phoned up* the girl.  
 b. He *phoned* the girl *up*.  
 (6) a. He *gave back* the money to his father.  
 b. He *gave* the money *back* to his father.  
 c. \*He *gave* the money to his father *back*.  
 d. \*He *gave* his father the money *back*.

그러나 화란어에서의 소사와 동사의 분포는 사뭇 그 양상이 다르다. 우선 주절에서는 소사이동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

- (7) a. hij *belde* het meisje *op*.  
 'he called the girl up.'  
 b. \*hij *belde op* het meisje.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종속절에서는 소사이동이 적용되지 않는다.

- (8) a. hij zei *dat* hij *opbelde*.  
 'he said that he upcalled('called up)'  
 b. \*hij zei *dat* hij *belde op*.

그리고 주절에서 소사이동규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영어에서와는 달리 동사 다음에 여러

명사구가 나란히 오거나 혹은 명사의의 다른 성분이 오는 경우 소사가 첫번째 명사 다음으로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성분 다음으로 이동해서 문장의 제일 마지막 위치로 이동한다.

- (9) a. *hij gaf zijn vader het geld terug.*  
 'he gave his father the money back'  
 b. \**hij gaf zijn vader terug het geld.*

이에 대해서 Koster는 다음과 같이 화란어에서는 소사이동규칙대신 동사 이동규칙이 있다고 가정함으로써 위의 예문을 자연스럽게 설명하고 있다.

- (10) a. Dutch is an SOV language.  
 b. Dutch has no rule of Particle Movement at all.  
 c. the obligatory root transformation of Verb Placement leaves the particle behind (in the original position of the V).

즉 화란어에서는 소사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소사와 나란히 위치하고 있던 굴절동사가 이동한다는 설명이며 따라서 남아있는 소사의 위치가 동사의 기저 위치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화란어에서는 소사가 동사의 앞에 위치한다. 동사 이동은 주절에서는 반드시 적용되며 종속절에서는 적용이 안되므로 위의 자료는 모두 자연스럽게 설명이 된다.

위와 같은 Koster의 논의를 고대영어에도 적용할 수 있는가? 고대영어의 예문을 보면 굴절동사가 이동을 하고 소사가 동사구 끝에 그냥 남아 있는 경우(11)도 있지만 소사와 동사가 반드시 분리되는 것은 아니다. (12)

- (11) a. *þa astah se Hælend up on ane dune.*  
 'then rose the Lord up into a mountain'  
 b. *þa eadon hie ut.*  
 'then went they out'  
 (12) a. *Stephanus up-astah purh his blod gewuldorbeagod.*  
 'Stephen up-rose through his blood crowned-with-glory'  
 (=stephen ascended, crowned with glory through his blood)  
 b. *Soplice ut eode se sawere hys sæd to sawenne.*  
 'truly out-went the sower his seed to sow'  
 (=indeed, the sower went out in order to sow his seed)

종속절에서는 (13)에서처럼 동사가 이동을 하지 않아서 소사가 동사의 앞 위치게 그냥 머무르는 예가 대부분이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 (13) a. *swa þæt þa cristenan bealdlice inn-eodon*  
 'so that the Christian boldly in went,  
 (=so that the christians went in boldly)  
 b. *þæt hie mid þæm þæt folc ut aloccoden.*  
 'that they with that the people out enticed'  
 (=so that by doing that, they would entice the people out)

위와 같은 경우의에도 종속절에서는 (14)에서 보듯이 소사가 동사의 왼쪽으로 이동한 듯이

보이는 구분도 있으며 (15)와 (16)에서 보듯이 소사가 동사의 바로 오른쪽으로 혹은 명사 다음 위치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다.

- (14) a. *pæt heo woldan his ban geneoman & up ofer eorþan adon*  
 'that they wanted his bones take & up over earth remove'  
 b. *peah þu sie up ofer pine mæd ahæfen*  
 'though you are up over your condition raised'  
 (=although you are raised above your condition)
- (15) a. *pæt se deofol on anes blacan cildes hiwe teah ut one*  
 'that the devil in a black child's guise drew out the  
 munuc be þam fnæde his gyrelan.  
 monk by the hem of his garment.'  
 (=that the devil in the form of a black child drew out the monk by the hem of his  
 garment)  
 b. *pæt se wuldorcnyng on middangeard cwom forþ of þam*  
 'that the glorious king on earth came forth from the  
 innope þære a clænan fæmnan  
 womb of the ever clean woman'  
 (=that the glorious king on earth came forth from the womb of the ever pure virgin)
- (16) a. *se scop wæs secgende pæt Egypti adrifen Moyses*  
 'the poet was telling that the Egyptians drove Moses  
 ut mid hys leodum.  
 out with his people'  
 b. *pæt he wearþ pæt sweord onweg pæt he on handa hæfde.*  
 'that he threw the sword away that he in hands had'

하지만 위의 예문이 보여주는 화란어와 고대영어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화란어에서와 마찬가지로 고대영어에서도 소사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굴절동사가 이동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 (17)에서 보듯이 소사와 동사 사이에 자리한 요소들이 명사구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하고 그 수가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5~6)에서 적용된 현대영어 소사 이동규칙이 그대로는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 (17) a. *þa sticode him mon þa eagan ut*  
 'then stuck him someone the eyes out'  
 (=then his eyes were gouged out)  
 b. *þa ahof Drihten hie up*  
 'then raised the Lord them up'  
 (=then the Lord raised them up)

따라서 고대영어에서도 소사이동을 상정하기 보다는 동사 이동을 생각해야 하며 따라서 (1)과 (7)에서 남아있는 소사의 위치가 동사의 기저 위치를 나타내 주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그리고 (13)에서는 동사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가정하면 동사의 현위치가 그대로 기저 위치를 나타내 주는 것이다.

단(14~16)의 예문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한데, 이러한 예문에 대해 Kemenade (1987)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하고 있다. 즉, (14)에서처럼 소사가 동사의 왼쪽에 나타나는 예에서는 소사와 동사 사이의 요소가 항상 부사구 PP이므로 이 경우의 소사는 동사의 소사라기 보다는 이 부사구 PP의 수식어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from behind the tree'와 같은 표현에서 *from*과 같이 분석하는 것이다. (14)에서 *up-adon*과 *up-hæfen*이 하나의 어휘동사(lexical verb)로 사전에 기재되지 않고 대신 *up*만이 부사로서 단독으로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점이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해준다. 단 예문 (15)와 (16)을 볼때는 고대 영어에서도 제한적으로 종속절에서 현대영어와 같은 소사이동규칙(a local rule of particle movement)이 존재했으며 이 규칙이 현대영어 소사규칙의 전신이었을지도 모른다고 Kemenade는 결론짓고 있다.

동사가 문장의 마지막 위치에 오는 어순이 기저어순이라는 주장은, 다음 문장에서 보듯이 굴절동사(finite verb)와 비굴절동사(non-finite verb)가 같이 쓰이는 경우에 굴절동사는 문장의 두번째 위치에 오지만 본 동사는 문장의 제일 마지막 위치에 오는 점으로도 잘 설명이 된다.

- (18) a. *We sculon swipe smealice pissa ægþer underþencean*  
 'We must very narrowly these both consider'  
 (=We must consider both of these very carefully)
- b. *On twam þingum hæfde God þæs mannes sawle gegodod.*  
 'In two things had god the man's soul endowed'  
 (=God had endowed man's soul with two things)
- c. *ponne beod eowere eagan geopende.*  
 'then are your eyes opened'  
 (=then your eyes are opened)

즉 굴절동사와 본동사가 기저에서는 나란히 놓여 있다가 굴절동사만이 동사 이동한 것이다.

## 2. V2 이동

### 2.1. 보문자와 V2 이동

동사가 문장의(혹은 동사구의) 제일 마지막 위치에서 어떤 이유로 해서 문장의 두번째 위치로 이동하는 것을 V2 이동이라 하는데, 이 V2 이동은 주절에는 반드시 적용이 되어야 하며 종속절에서는 주절과는 반대로 적용되지 않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V2 이동은 주절과 종속절이라는 절의 형태에 따라서 적용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V2 이동은 보문자의 존재여부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즉 종속절에서는 보문자의 존재 때문에 V2 이동이 적용되지 않으며 주절에서는 보문자가 없어서 V2 이동이 가능한 것이다. 그 이유는 V2 이동은 동사가 보문자의 자리로 이동하는 현상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다음의 예를 보면 종속절에서도 보문자가 나타나지 않는 문장에서 V2 이동이 적용된다.

- (19) a. *eala þu min leofa man ic þe mid lufe secge þu ic*  
 'Oh you my dear husband I you with love say þu I  
*hæbbe* Godes engel...  
 have(subj.) God's angel

(=Oh, my dear husband, I say to you with love  $\phi$  I have God's angel...)

즉 종속절이라고 하더라도 기저생성된 보문자가 어휘적으로(lexically) 나타나지 않으면 V2 이동이 가능한 것이다. 위 예문에서 *hæbbe*가 가정법 동사로 나타나고 있음은 ic ~이하 종속절이 동사 *secge*에 의해서 지배(govern)되는 목적절이지 독립적인 인용문이 아니라는 증거가 된다. 이같은 현상은 독일어에서도 잘 관찰이 된다. (Kemenade(1987:46))

- (20) a. Er sagte *daß* er ihn *gesehen* hat.  
'he said that he him seen has'  
b. Er sagte  $\phi$  er *habe* ihn *gesehen*.  
'he said  $\phi$  he had(subj.) him seen'  
c. Er sagte,  $\phi$  er *komme* morgen.  
'he said  $\phi$  he come(subj.) tomorrow'  
d. Er sagte  $\phi$  gestern *wäre* er schon *arriviert*.  
'he said  $\phi$  yesterday have(subj.) he already arrive.'

이 경우에도 영어의 가정법과 비슷한 접속법 동사가 쓰이고 있음을 눈여겨 봐야 한다.

반면에 주절에서도 기저형에서 생성된 보문자(a base-generated complementizer)를 갖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종속절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사가 V2 이동을 하지 않고 문장의 마지막에 그냥 머물게 된다.

- (21) *Dat* hans het in zijn hoofd *haalt!* (exclamative)  
'that hands it into his head gets'  
(=How on earth did Hans get that into his head) [Dutch]

여기서 V2 이동한 동사가 어휘보문자와 상보적 분포를 보임으로써 V2 이동하는 동사의 착륙지점(landing-site)이 보문자의 자리는 가정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가정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증거가 고대영어의 Yes/No 직접 의문문에서 발견된다. 고대영어의 Yes/No 의문문은 *do*-삽입규칙이 없이 동사가 바로 주어앞으로 도치됨으로써 형성된다.

- (22) *Wäst* pu pone forlidenan man?  
'Do you know the shipwrecked man?'

그런데 고대영어의 Yes/No 의문문은 (23)과 같은 간접의문문과 마찬가지로 (24)에서와 같은 직접 의문문인 경우에도 *whether*로 시작할 수 있었다.

- (23) He *axode* hwæper he *pæt* tacen ongytan meahte.  
'he asked if he could understand that sign.'  
(24) a. *Hwæper* gē nū *sēcan* gold on treonum?  
'Do you seek gold in tree?'  
b. *Hwæðer* ic mote *lybban* oðdat ic hine gessēo?  
'May I live until I see him?'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직접의문문이 *whether*로 시작될 때는 동사의 도치(Subject-Aux Inversion)이 없다는 사실이다. 즉 *whether*가 보문자 위치에서 어휘화(lexicalized)되었기 때문에 V2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whether*가 *wh*-보문자라는 점은 이미 잘 알려진 사

실이다. 이렇게 어휘화된 보문자와 V2 이동된 동사가 상보적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봐서 두 요소는 같은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는 가정을 가능하게 한다.

한편 *whether*는 “which of two”라는 의미로서 의문대명사로 쓰이기도 했는데 (Jespersen (1913)) 이 경우에는 *whether*가 CP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하므로 당연히 동사의 이동을 수반하게 된다.

- (25) a. *Hwæðer cweðe we ðe ure ðe ðara engla?*  
 ‘Which say we or ours or the angels?’  
 (=Shall we say ours or the angels?)  
 b. *Hwæðerne woldes ðu ðeman wites wyrðan?*  
 ‘Which would you deem punishment worthier?’  
 (Which would you deem worthy of punishment?)

결론적으로 기저생성된 보문자와 V2 이동된 동사는 서로 상보적 분포(complementary distribution)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기저형에서 생성된 보문자가 동사의 이동을 막는다는 해석으로 이어지며, 역으로 V2 이동한 동사는 바로 보문자의 위치로 이동해 간다는 가정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V2 이동이란 주절만의 현상은 아니며 주절이든 종속절에서든 ‘시제 동사가 보문자의 위치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 2.2. 굴절소(INFL)를 포함하는 보문자

모국어화자를 통해서 부정적인 증거를 얻을 수 없는 고대영어에 대해서는 확인할 길이 없으나, 독일어나 화란어에서 유추해 볼때 보문자가 나타나지 않는 문장에서 동사가 V2 이동을 하지 않으면, 즉 문장의 마지막 위치에 그냥 있으면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 (26) a. Karl *hat* gestern das Buch *gekauft*.  
 ‘Karl *has* yesterday the book *bought*’  
 b. \*Karl gestern das Buch *gekauft hat*.  
 c. ...*daß* Karl gestern das Buch *gekauft hat*.  
 d. \*...*daß hat* Karl gestern das Buch *gekauft*.

그렇다면 시제동사는 왜 보문자의 위치로 왜 반드시 이동해야만 하는가? 여기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은 독일어, 화란어, 또 고대영어 같은 서 게르만어는 아래 구조처럼 보문자가 굴절소를 포함한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 (27) a. Old English
- ```

      S
     / \
  COMP  S
       / \
      NP  VP
  
```
- b. Modern English
- ```

      S
     / \
  COMP  S
       / | \
      NP INFL VP
  
```

이때 보문자 속에 포함된 굴절소는 어휘화되어야(lexicalized)하는데 종속절에서는 기저에서 생성된 보문자(base-generated complementizer)에 의해서 바로 어휘화 되지만 보문자가 나타나지 않는 주절에서는 동사가 이동해 와서 어휘화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동사는 보문자 위치로 이동하게 되고 또 반드시 이동해야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 3. 고대영어의 문장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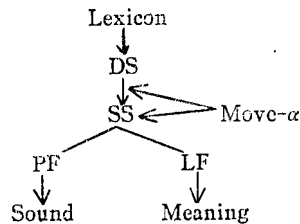
## 3.1. 최소 이론에서의 만족규칙('Satisfy' Rule)과 문장구조

V2 이동은 보문자 밑에 기저 생성되는 굴절소에 의해 야기된다는 가정에 따라 고대영어의 (혹은 모든 V2 언어의) 문장구조를(27a)처럼 설정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우선 (27a)구조는 굴절소가 문장의 핵(head)이라는 가정(Chomsky(1981))에 어긋난다. 굴절소가 보문자 아래 기저생성되는 것으로 가정이 되기 때문에 문장이 핵이 없는 상태가 되며<sup>5)</sup>, 아울러 굴절소는 일치(agreement) 요소와 시제(tense)를 모두 포함하므로, 굴절소가 문장앞의 보문자 자리에 생성된다면, 종속절에서처럼 굴절소가 보문자에 의해 어휘화되는 경우에 문장은 시제가 없는 형태가 될 것이다. 따라서 고대영어 등 V2 이동을 허용하는 언어에서의 문장구조를 (27a)처럼 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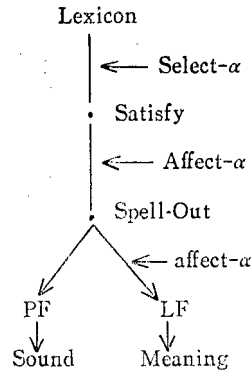
또한 (27b)에서의 S→NP INFL VP와 같은 구조 역시 Chomsky(1981)에 의해 주장된 것이긴 하나 Chomsky(1992)의 최소이론에서는 수용이 될 수 없다.

그럼 여기에서 Chomsky(1992)가, 지배결속이론에 대한 새로운 개혁이론으로 제시하고 있는 최소이론의 문법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8) a. 지배 결속 이론



b. 최소이론



위의 체계와 더불어 최소이론의 기본가설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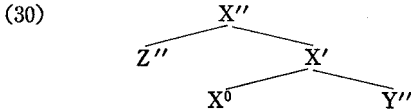
- (29) a.  $\alpha$ -선택(Select- $\alpha$ )  
 b. 만족(Satisfy) : 최소 핵계층구조  
 c.  $\alpha$ -처리(Affect- $\alpha$ )  
 d. 문자화(Spell-Out)  
 e. 문법적 계층 : 논리형태(Logical Form)와 음성형태(Phonetic Form)  
 f. 문법적 도출의 경제(Economy)원리 : 지연성(Procrastination)과 이기성(Greed)  
 g. 문법적 도출의 기본요인 : 형태론적 특성 또는 자질(morphological properties or features)

최소이론 체계와 지배결속이론 체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배결속이론에서 가정된 D-구조와 S-구조가 없어지고 그 자리에 각각 '만족'이라는 규칙과 '문자화' 규칙이 적용되는 것

5) Taraldsen(1983)은 V2 언어에서는 동사가 문장의 핵이고 현대영어나 로만스어에서는 굴절소가 문장의 핵이라는 매개변수(parameter)를 주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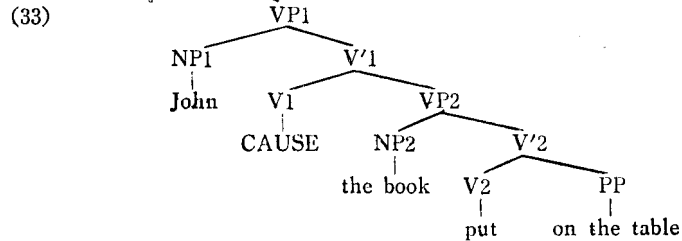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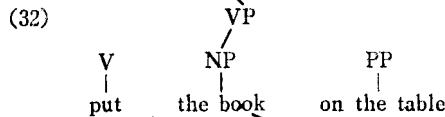
이다.<sup>6)</sup>

(29b)의 만족규칙은 어휘부(lexicon)에서  $\alpha$ -선택으로 입력된 모든 어휘항목은 다음(30)과 같이 최소 핵계층구조(minimal X-bar structure)를 만족시키면서 자동투사(project)된다는 것이다.



즉 모든 핵은 “항상” 그리고 “반드시” 하나의 보충어(Y'')와 하나의 지정어(Z'')만을 허락하는 최소 핵 계층 구조로만 투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가정은 다른 많은 가설들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으며 지배결속이론과는 다른 효과를 낳는다. 예를 들어 (31)과 같은 문장은 (32)와 같은 구조가 될 수 없고 (33)과 같은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가정이 되는데, 이런 가정으로 인해 기저구조에서 'CAUSE'와 같은 추상적 어휘(abstract lexical entry)까지 등장하게 된다.

(31) John put the book on the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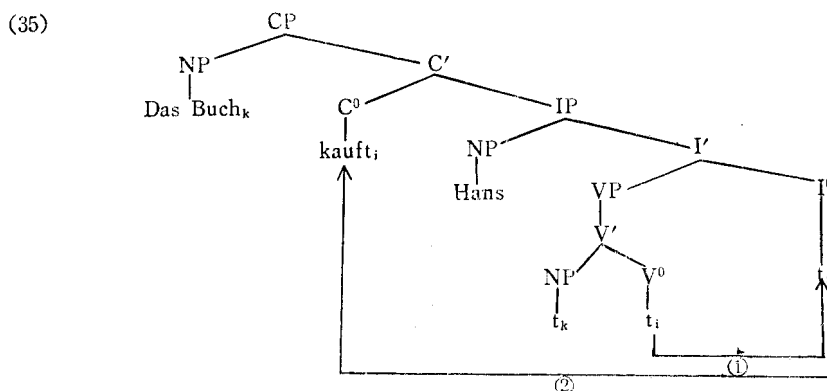


물론 CAUSE 같은 추상어휘는 *put* 동사가 이동해서 문자화된 다음 해석부(LF)로 넘어가게 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최소이론의 만족규칙에 의하면 S→NP INFL VP같은 3가지(tertiary-branch) 구조는 도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Chomsky(1986b)는 굴절소가 문장의 핵이라는 점을 S(sentence)를 IP 즉 굴절소의 최대투사(INFL Phrase)로 또 보문자가 포함되는 S는 보문자의 최대투사(Complementizer Phrase) 즉 CP로 명시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Haegeman(1991)은 IP분석에 따라 독일어 V2 구문 (34)를 (35)처럼 분석하고 있다.

(34) Das Buch kauft Hans.

6) 최소 이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homsky(1992)와 Yang(1992)을 참조하기 바람.



그러나 위와같은 구조에서는 동사가 굴절소까지 인상(raising)되는 것은 설명이 되지만 굴절소로 핵이동한 동사가 왜 “받드시” 보문자의 위치로 다시 인상되어야 하는지는 설명이 안된다. 왜냐하면 이 경우 동사를 보문자 위치로 인상시켜줄 굴절소와 같은 형태론적 요소가 보문자 위치에 생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굴절소가 보문자의 위치에 가져 생성된다고 보아도 문제가 있고 굴절소를 문장의 핵으로 보고 그 문장(IP)속에 위치하는 것으로 가정해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 3.2. 굴절소의 세분화

그와 같은 문제점은 시제(tense)와 일치(agreement)요소를 별도의 핵으로 분리시킴으로써 설명이 가능해진다. (Pollock(1989), Chomsky(1989, 1992))

Pollock(1989)에 따르면 굴절소(INFL)는 일치(Agreement: AGR<sup>0</sup>)과 시제(Tense: T<sup>0</sup>)의 두개의 별도 핵으로 분리가 되며 이들 핵은 그 자신의 최대투사범주(maximal projection)를 형성하게 된다. Chomsky(1989) 역시 굴절소의 분리를 주장하고 있으나 Belletti(1990)의 주장을 받아들여 Pollock(1989)과는 반대로 AGR<sup>0</sup>을 T<sup>0</sup> 보다 구조적으로 높은 위치에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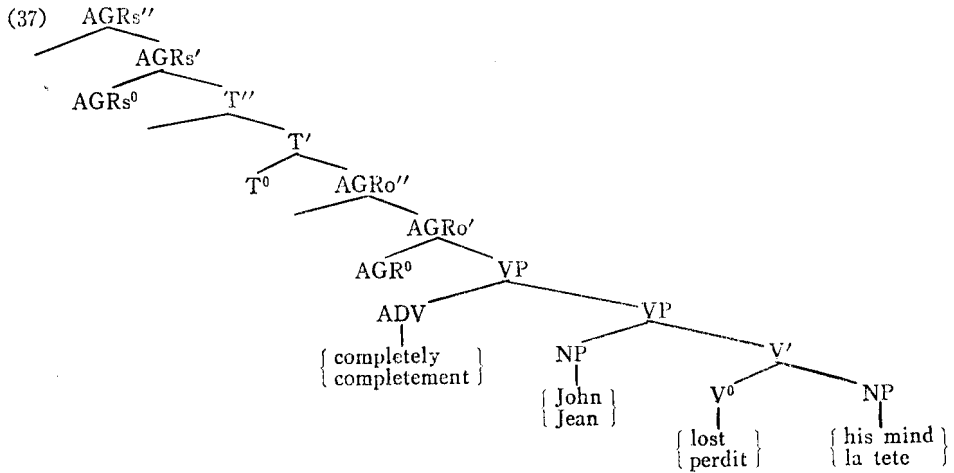
Chomsky(1989, 1992)는 각 언어의 차이를 매개변수(parameter)로 설명하고 있으며 각 언어의 매개변수는 기능범주(functional category)에 국한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각 언어마다 시제(tense)나 일치요소(agreement) 등의 범주가 그 형태론적 자질에 있어서 강약의 차이를 보이며 이 차이가 각 언어의 어순이나 격부여 현상에서 차이를 가져온다는 가정이다. 그 한 예로 영어와 불어의 동사와 부사 사이의 어순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Chomsky(1992)는 (37)에서 보듯이 Chomsky(1989)에서와 비슷한 IP-구조를 상정한 후 다음 (36)에서 보는 바와 같은 영어와 불어의 어순의 차이, 즉 영어의 어순은 「부사+동사」이고 불어의 어순은 「동사+부사」인 점을 형태론적 자질에 입각한 핵이동으로 설명하고 있다.

(36) a. John *completely* lost his mind.

b. Jean *perdit comple'tement* la tete.

(36)의 두 문장을 도출시키기 위해서 “ $\alpha$ -선택”되고 “만족”된 구조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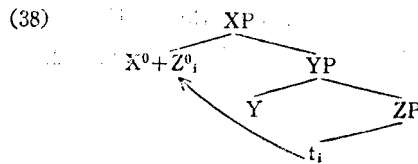
위의 구조에서 (36a)가 도출되기 위해서는 V의 지정어 자리에 있는 *John*이 문자화전에 T의 지정어 자리를 거쳐서 AGRs의 지정어 자리로 논항이동(argument-movement)해 올라가면 된다. 이때 동사 *lose*가 핵이동되기 전에도 *lost*로 문자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lost*가  $\alpha$ -선택될 때 동사 *lose*와 함께 관련된 AGR과 T의 형태론적 자질과 결합하여 *lost*로 문자화된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Chomsky(1992)는 이러한 가정은 어휘 음운론(lexical phonology)의 정신에 따른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문자화 이후에는 논리 형태에서 *lost*는 T로 핵이동하여 T의 동사자질(V-feature)과 형태론적 점검(morphological checking)을 함으로써 *lost*가  $\alpha$ -선택될 때 얻은 T의 자질을 인허(license) 받고 다시 AGRs로 핵이동되어 AGRs의 동사자질과 형태론적 점검을 함으로써 *lost*가  $\alpha$ -선택될 때 얻은 AGRs 자질을 인허 받는다. 한편 영어에서 T의 동사 자질과 AGRs의 동사자질은 약하여(weak), 문자화 전에(혹은 문자화되는 지점에서) 동사에게 방출(discharge)되지 않아도 음성형태의 합치점검에 걸리지 않는다고 가정해야 한다.

문자화 전에 T의 지정어 자리를 거쳐 AGRs의 지정어 자리로 논항 이동된 *John*은 역시 문자화전에 AGRs로 핵이동된 T의 명사자질(N-feature)에 의해 주격이 부여된다. 즉 T의 명사 자질은 강하므로(strong) T가 문자화전에 AGRs로 핵이동한다. 그러나 *his mind*에 대한 목적격의 부여는 논리형태에서 이루어진다. 즉, 논리형태에서 *lost*가 T를 거쳐 AGRs에 핵이동되기 직전에 AGRo에 핵이동되고 *his mind*는 AGR<sup>0</sup>의 지정어 자리로 논항 이동되어 올라가 AGRo와 결합한 *lost*가 자신의 명사자질(N-feature)을 통해 *his mind*에게 목적격을 부여한다. 이 과정에서 *lose*가  $\alpha$ -선택될 때 얻은 AGRo 자질을 AGRo의 동사자질(V-feature)과 형태론적 점검을 함으로써 인허 받는다. 한편, AGRo의 동사자질은 역시 약하여(weak), 문자화 전에 동사에게 방출(discharge)되지 않아도 음성형태의 합치점검에 걸리지 않는다고 가정해야 한다.

(36b)의 불어 문장의 도출을 위한 과정을 살펴보면, 불어에서도 T의 명사자질은 강하므로 문자화전에 T가 AGRs로 핵이동하고 동시에 *Jean*이 T의 지정어 자리를 거쳐 AGRs의 지정어 자리로 논항 이동되어 올라가 T의 명사자질로부터 주격을 부여 받는다. 그러나 동사 *perdit*는 영어 *lost*와는 달리 문자화전에 T를 거쳐 AGRs까지 핵이동되는데 그 이유는

붙어의 T의 동사 자질이 강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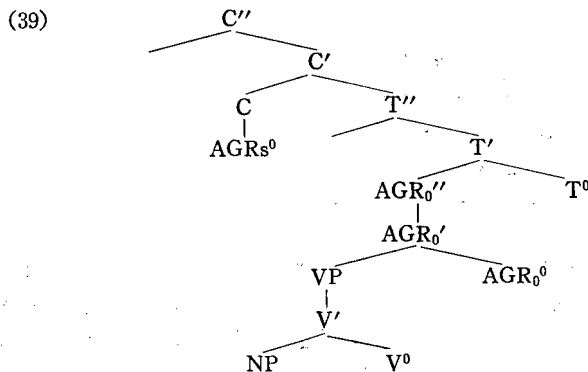
*perdit*가 *la tête*에게 목적격을 부여하는 과정에 대해 Yang(1992)은 붙어도 영어와 마찬가지로 AGRo의 동사자질이 약하기 때문에 문자화전에 동사에게 방출되지 않아도 된다고 가정한다. 즉 논리형태에서 동사가 AGRo로 이동하고 목적어가 지정어 자리로 이동한 다음 목적격이 부여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붙어에서 동사 *perdit*가 문자화하기 이전에 T<sup>0</sup>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AGRo를 들르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AGRo를 거치지 않은 이동은 다음 (38)과 같은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Head Movement Constraint(Travis(1984))를 어기게 되며 이는 Rizzi(1990)의 Relativized Minimality 이론에 따라 공범주원리 위반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즉 위의 구조에서 Z<sup>0</sup>가 핵이동하면서 중간 Y<sup>0</sup> 위치에 들르지 않고 X<sup>0</sup>의 자리로 바로 이동하면 이동한 Zi이 자기의 흔적 ti를 선행사 지배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동사 *perdit*가 T<sup>0</sup>의 강한 동사 자질에 이끌려 T<sup>0</sup>의 위치로 이동할 때 그전에 AGR<sup>0</sup>의 위치에 먼저 들러야 한다. 문자화 이전에 동사가 AGR<sup>0</sup>의 위치에 이동해 있으므로 목적어인 *la tête*를 AGR<sup>0</sup>의 지정어 위치에 이동시켜서 문자화 이전에 목적격이 부여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 목적어가 부사를 앞서게 되어 표면어순이 \*Jean perdit la tête comple'tement이 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동사가 문자화 이전에 AGR<sup>0</sup>를 거쳐 T<sup>0</sup>로 이동한다고 가정하되 목적격부여는 논리형태에서 AGR<sup>0</sup>에 있는 동사의 흔적에 의해 어순의 변경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 3.3. 고대영어의 문장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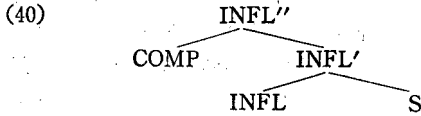
본고는 고대영어의 문장구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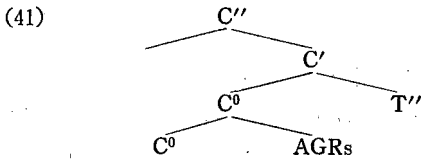
위의 구조가 (37)에서 제시된 구조와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점은 두가지이다. 첫째는 보문자 C<sup>0</sup>를 제외한 나머지 핵(최소한 여기서는 V, AGR<sup>0</sup>, T<sup>0</sup> 등)은 모두 핵후순(head-final)이라는 점이고 두번째는 AGRs는 자기의 최대 투사범주를 구성하지 못하고 보문자 밑에 기

저부가(base-adjoined) 된다는 점이다.

Kemenade(1987:53)는 보문자를 다음과 같이 INFL''의 지정어(Specifier)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COMP와 INFL은 별도의 핵이므로 위의 구조는 Chomsky(1986)의 이론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Platzack(1983)의 경우는 COMP와 INFL이 합쳐진(conflated) CONFL이라는 새로운 범주(category)를 제안하기도 한다. 그러나 (39)에서는 AGRs만이 보문자 밑에 기저부가된 형태라고 보고 있으며, 특히 AGRo와 AGRs는 같은 성격의 범주자로 가정이 되므로 AGRo가 핵(head-final)인 점에 기초하여 AGRs도 보문자의 왼쪽에 기저부가되는 것으로 본다.



보문자의 오른쪽에 AGRs가 부가된다는 가정은 나중에 다시 논하겠지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보문자 밑에 주어에 대한 일치요소 즉 AGRs가 기저 생성된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은 자료에 의해서 입증된다. 즉 고대영어 문헌에서는 나타나고 있지만 일부 다른 서게르만어에서는 보문자가 주어와 일치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굴절요소가 형태론적으로 보문자에 실현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 (42) a. ...date Jan en Kees morgen zullen komen.  
 '...that+pl. Jan and Kees tomorrow will come'  
 b. ...dat(\*e) Jan morgaen zal komen  
 '...that(+\*pl.) Jan tomorrow will come' (Dutch Dialects)

- (43) a. 'k weten niet wanneer dan Jan en Marie go away  
 'I know not when that+pl. Jan and Marie go away'  
 b. 'k weten niet wannen da(\*n) Jan goat weghean.  
 'I know not when that+\*pl. Jan go away' (west Flemish)

사실 위의 예문들은 (27a)의 구조를 가정하기 위해 제시된 예문들이다. 굴절된 보문자(inflected complementizer)가 제공하는 정보는 주어와의 일치(특히 수 일치)에 관한 내용뿐이지 보문의 시제에 대해서는 아무 표시가 없는 것이다. 굴절소란 일치, 시제 심지어는 부정(negation)이나 범주동사등도 모두 포함하는 범주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위의 예문만 가지고 굴절소 전체가 보문자 아래 기저생성된다고 가정하는 것은 무리이며 단지 주어에 대한 일치요소(즉 AGRs)만 나타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다음 예문들을 보면 무게가 가벼운 대명사(weak pronouns)들이 보문자에 접사로 나타나

고 있다.

- (44) dat-ie gisteren Jan het boek heeft gegeven.  
 'that-he yesterday Jan the book has given'  
 (=that Jan gave him the book yesterday) [Dutch]

- (45) a. ...dan-k noa Gent goan.  
 '...that-I to Ghent go' (=that I go to Ghent)

- b. ...da-se noa to Ghent goat.  
 '...that-she to Ghent goes' (=that she goes to Ghent) [west Flemish]

고대영어에서는 대명사가 보문자와 음운론적으로 결합되지는 않지만 대명사 주어나 목적어가 보문자의 위치에, 특히 보문자의 오른쪽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 (46) a. *gif hie ænigne feld secan wolden.*  
 'if they any field seek wanted'  
 (=if they wanted to seek out and fie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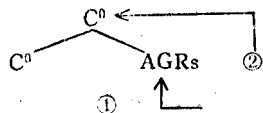
- b. *þæt him his fiend wæren æfterfylgende.*  
 'that him his enemies were following'  
 (=that his enemies were chasing him)

- c. *þæt him eal middangeard to beah.*  
 'that him all world to bowed'  
 (that all the world bowed to h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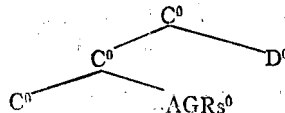
고대영어의 대명사를 접사로 보면(Kemenade(1987)) 위의 예문에서도 대명사는 접사이동(clitic Movement) 한 것으로 가정된다. 대명사 접사는 격을 부여할 수 있는 위치(즉 동사, 전치사, 굴절소 즉 AGRs와 Tense)로 이동해 간다는 가정(Borer(1963), Aoun(1985))을 받아들이면 보문자의 오른쪽에 대명사 접사가 나타나는 것은 보문자의 오른쪽에 격을 부여할 수 있는 AGRs이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 해준다.

특히 우리는 '접사는 격을 부여할 수 있는 요소와 선형적으로 인접해서 나타난다'는 보다 제한된 주장을 한다. 그렇게 되면 다음에서 보듯이 이미 기저에서 하나의 합쳐진 핵으로 나타나는 [C<sup>0</sup>+AGR<sup>s</sup>] 사이로 대명사 접사가 이동(1번이동)할 수 없으므로 당연히 (47b)처럼 C<sup>0</sup>의 오른쪽에 접사가 부가될 수 밖에 없다. (2번 이동)

(47)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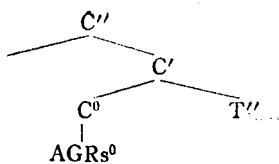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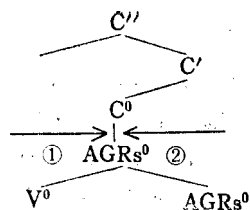


만약 주절에서의 경우처럼 보문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보문자의 구조가 (48a)처럼 될 것이다. 여기에 V2 이동이 적용되면 (48b)와 같은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이 경우에는 이동해 온 접사가 보문자의 좌우에 모두 부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게 된다.

(48) a.



b.



(48b)에서 이동해온 동사가  $AGR^0$ 과 결합할 때는 그 선형순서(linear order)는 상관이 없으므로  $[AGR^0+V^0]$ 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동사에 실현된 일치요소가 일치핵에 의해 인허받기 위해서는 동사가  $C^0$ 가 아닌  $AGR^0$ 로 핵이동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다음 고대영어 예문을 보면 대명사 접사가  $V^2$  이동해서 보문자의 위치로 옮겨간 동사의 좌우에 모두 나타나고 있다.

(49) a. God [him worhte] $C^0$  þa reaf of fellum.

'God them wrought then garments of skins'

(=then God made garments of skin for them)

b. Fela spella [him sædon] $C^0$  þa Beormas, ægþer ge of

'many stories him told the Permians both of

hoiora agum lande...,

their own country,...

(=the Permians told him many stories, both about their own country)

(50) a. þa [sticode him] $C^0$  mon þa eagan ut.

'then stuck him someone the eyes out'

(=then his eyes were gouged out)

b. Ne [geseah hine] $C^0$  nan man nates-hwon yrre.

'not saw him no man so little angry'

(=no one ever saw him so little angry)

'고대영어의 보문자 아래 일치핵이 기저생성된다'는 주장은 위의 논거로 볼 때 큰 문제점은 없을듯 하다.

Rizzi(1990)는 다음과 같은 현대영어 예문에서 주어 자리에 나타나는 흔적이 핵지배(head govern)되기 위해서는 주어의  $C$ -통어하는 핵인 보문자의 위치에 핵지배자가 있다고 가정한다.

(51) a. Who  $\phi$  [t left]?b. Who do you think [t  $\phi$  [t left]]?

그러나 (52)에서 보듯이 Rizzi의 핵지배 정의에 따르면 보문자는 핵지배자가 될 수 없다.

(52) Head Government: X head-governs Y iff

i)  $X \in \{A, N, P, V, Agr, T\}$ 

ii) X m-commands Y

iii) no barrier intervenes Y

iv) Relativized Minimality is respected.



따라서 현대영어에서 시제질의 보문자는 *that*이나 AGR로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53) C<sup>0</sup> — { *that* }  
                  { Agr }

즉 현대영어의 시제 보문자는 *that*같은 어휘 보문자로 나타나거나 영 보문자(null complementizer)로 나타나는데 이 영보문자는 수의적으로 AGR로 실현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4a)의 고대영어 예문에서 주어는 CP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했고 IP의 지정어에는 그 흔적이 남아 있는데, 이 흔적이 핵 지배되는 이유도 (39)의 구조에서 보듯이 보문자에 기저생성된 AGR<sup>0</sup>이 있기 때문인 것이다.

특히 고대 영어에서는 보문자가 나타나는 경우에도 AGR이 보문자와 함께 생성되는 것으로 보는데 그러한 가정을 가능하게 하는 또 다른 증거로 고대영어에는 *that*-trace 현상이 없다는 점이다.

(54) a. Nu ge habbað gehyred hwilc þes god is þe  
          'Now you have heard what this god is that  
          ge wendon þæt eow gehælde.  
          you thought that you healed.'

(=Now you have heard what this god is that you thought healed you)

b. Forþam þe we habbað gecanawan fela þera  
          'Because that we have observed many of the  
          fortacna þe Crist sylf foresæde þæt cuman scolde.  
          portents that Christ self predicted that come should'

(=Because we have observed many of the portents that Christ himself predicted should come.

(51)의 주어자리가 보문자에 있는 AGR에 의해 핵지배된다는 Rizzi의 설명대로라면 고대영어 예문 (54)에서는 *that*이 나타나도 주어자리를 핵지배할 수 있는 AGR이 보문자의 위치에 나타난다고 가정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39)의 구조를 뒷받침해 주는 증거로 볼 수 있다.

(36)에서 보았던 영어와 불어의 어순차이는 결국 영어의 시제핵(T<sup>0</sup>)과 불어의 시제핵이 가지고 있는 동사자질의 강약때문이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한편 고대영어에서는 시제핵은 물론이고 일치핵의 동사 자질 역시 강하기 때문에 음성형태의 합치점검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휘동사가 문자화 규칙이 적용되기 이전단계에서 시제핵을 거쳐 보문자 위치에 기저생성된 AGRs<sup>0</sup>로 반드시 핵이동 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 언어 유형사이에 는 다음과 같은 매개변수가 설정될 수 있다.

(55) 시제핵과 주어 일치핵의 동사 자질에 관한 매개변수<sup>7)</sup>

	Modern English	French	Old English
Tense	weak	strong	strong
agreement	weak	weak	strong

7) 여기에 제시된 고대영어를 위한 매개 변수는 독일어나 화란어 등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다.

한편 종속절에서는 AGRs의 동사자질이 어휘 보문자에 방출되므로 AGRs의 동사자질이 비록 강하다고 해도 음성형태의 합치점점에 걸리지 않게 된다. 하지만 종속절 동사 역시  $\alpha$ -선택될때 시제와 함께 일치의 요소도 함께 선택이 되므로 문자화 이전에 시제핵까지 이동한 동사가 논리형태(LF)에서는 보문자로 이동해서 합치점점을 받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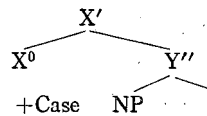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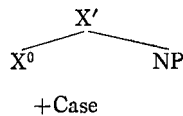
#### 4. 고대영어의 격부여

##### 4.1. 주격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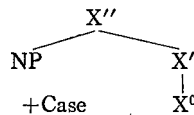
다음은 (39)와 같은 고대영어 문장구조에서 주격과 목적격 같은 격부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자

Sportiche(1988)나 Koopman & Sportiche(1990)에 의하면 구조적 지배(government)나 일치(agreement)중의 한 형태로 부여된다.

##### (56) a. Case-assignment under government



##### b. Case-assignment under agreement



(56a)에서 보듯이 지배란 핵(head)과 그 보충어(혹은 그 보충어의 지정어)와의 관계이며, Sportiche(1988)는 지배를 C-통어(본인의 용어로는 i-command)로 정의하기 때문에<sup>8)</sup>, (56b)의 핵과 그 지정어의 일치관계(Chomsky(1986b)는 이를 지정어-핵 일치(SPEC-head Agreement)라는 용어로 부르고 있음)는 지배관계의 한 예는 아니다. Roberts(1991)는 구조적부여가 두가지 형상하에서 가능하다는 Sportiche의 주장을 받아 들이면서 언어에 따라서는 주격부여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매개 변수적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 (57) a. Nominative-assignment under both government and agreement

##### b. Nominative-assignment under government only

##### c. Nominative-assignment under agreement only

예를 들어 아래 두 예문에서 (58a)의 경우는 I<sup>0</sup>가 (보다 정확하게는 AGRs<sup>0</sup>)가 일치관계하에서 지정어 위치에 있는 John에게 주격을 부여하며, (58b)에서는 C<sup>0</sup>로 옮겨간 I<sup>0</sup>가(혹은 AGRs<sup>0</sup>)가 지배관계하에서 주격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 (58) a. John has seen Mary.

##### b. Has John seen Mary?

따라서 현대영어는 (57a)의 예가 되는 언어이며 (57b)의 예가 되는 언어로는 VSO 어순을 보이고 있는 Welsh어가 제시되고 있다. 다음과 같은 Welsh어 예문에서 주어인 *y plentyn* 은 VP속의 기저위치에 머물러 있어야만 되며 그 자리에서 바로 주격을 부여받아야 한다.

8) Sportiche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9) Gwnaeth y plentyn weld ceffyl

'did the child see horse'

(=The child saw a horse)

만약 주어가 AGRsP의 지정어 위치로 올라오게 되면 AGRs<sup>0</sup>에 의해 지정어-핵 일치관계에 의해서도 주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때는 표면 어순이 SVO로 바뀌므로 주어가 상승해서 안된다. 따라서 (59)에서는 INFL이 VP의 지정어 위치에 있는 주어에 지배관계하에서 바로 주격을 부여하게 된다. 그러나 이때 INFL에서 격부여자로 간주되는 AGRs<sup>0</sup>는 실제로는 주어인 *y plentyn*을 지배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AGRs<sup>0</sup>와 *y plentyn* 사이에는 T<sup>0</sup>(시제 핵)이 끼여 있어 지배관계가 성립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각주 6의 Sportiche '지배' 정의 (iii)항 참조, 혹은 Rizzi(1988, 1990) *Relativized Minimality* 참조). 즉, 핵이 어떤 요소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다른 핵이 있으면 안되는 것이다. 가까이 있는 핵이 우선적으로 지배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현대 영어 예문(58a)에서 주어가 VP의 지정어 자리에서 AGRs<sup>0</sup>에 의해서 지배관계하에 격부여를 받지 못하고(영어는 지배관계하에서도 주격부여가 가능하므로) AGRsP의 지정어 위치로 반드시 이동한 다음 주격을 부여받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때 주어가 AGRsP의 지정어가 아니라 TP의 지정어 자리까지만 인상이 되면 AGRs<sup>0</sup>이 TP의 지정어 자리를 지배하고 있으므로 주격부여가 가능할듯 보인다. 하지만 Roberts에 의하면 TP의 지정어는 A'-위치(A'-position)이므로 주어와 같은 논항의 착륙지점(landing-site)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Roberts는 또 하나의 매개변수적(parametric)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주격 부여자는 AGRs<sup>0</sup>와 더불어 Tense도 자격이 있다'는 가정이다. 따라서 '어떤 언어에서 주격부여자가 AGR<sup>0</sup>인지 Temse인지' 하는 점은 그 언어가 갖는 매개 변수중의 하나가 되는 것이다. Welsh어에서는 Tense가 주격부여자라고 보면 (59)에서 주어는 VP의 지정어 위치에서도 자연스럽게 T<sup>0</sup>에 의해 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60)에서 보듯이 불어에서는 도치(inversion, 즉 AGR<sup>0</sup> to C<sup>0</sup> Movement)가 불가능하다.

(60) a. \*A Jean pris le livre?

'Has Jean taken the book?'

b. \*Quel film a Jean vu?

'Which film has Jean seen?'

(58b)의 영어 예문과는 대조적인데, 불어의 경우에는 AGR<sup>0</sup>이 일치관계에서만 주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60)의 비문법성은 주어가 격을 못받기 때문이다. 즉 불어는 (57c)의 예가 되는 언어이다.

이러한 Sportiche(1988) 및 Roberts의 이론에 따라 고대영어의 격부여, 특히 주격 부여 과정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고대영어의 문장구조(39)에서 보면 T<sup>0</sup>는 그 지정어와 일치관계에 놓이게 되고 AGRs<sup>0</sup>는 TP의 지정어를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고대영어의 주격부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i)  $\alpha$  is s head

(ii)  $\alpha$  c-commands  $\beta$

(iii) there is no head  $\gamma$  which c-commands  $\beta$  but does not c-command  $\alpha$ ;

(iv) there is no barrier  $\gamma$  such that  $\gamma$  includes  $\beta$  but not  $\alpha$

(61)

	격 부여자	형상
가능성 1	T <sup>0</sup>	일치
가능성 2	AGRs <sup>0</sup>	지배

두가지 가능성중 어느쪽을 택하든 주어가 기저위치인 VP의 지정어 위치에서는 주격을 부여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T<sup>0</sup>는 VP의 지정어와 일치관계는 아니며, 또 AGRs<sup>0</sup>와 VP의 지정어 사이에는 T<sup>0</sup>이 있어서 AGRs<sup>0</sup>이 바로 지정어 자리를 지배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Roberts의 이론에 따르면 두가지 가능성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 Roberts가 TP의 지정어 자리를 A'-위치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Roberts의 주장대로라면 주어가 TP의 지정어 위치로 오도록 되어있는 (39)와 같은 구조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그렇지만 Chomsky(1989, 1992)는 TP의 지정어도 A-위치라고 말하고 있다. 더우기, D구조와 S구조의 구분이 없어진 최소 이론에서는 “D-구조에서 논항이 올 수 있는 자리”라는 A-위치의 정의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대신 Chomsky(1992)에 따르면 A/A' 위치의 구분은 어휘항목(lexical item)의 형태론적 자질(morphological properties)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결정이 된다. 즉 어떤 위치가 동사 자질이나 명사 자질 등 어휘 자질과 인접해 있으면 그 위치는 “어휘 관련” 위치가 되면서 A-위치가 되는 것이다. 시제핵은 동사자질 명사자질 등 어휘자질을 가지고 있음을 2.2, 2.3에서 살펴보았으므로 시제핵의 지정어나 보충어 자리는 당연히 A-위치가 되는 것이다.

A/A' 구분에 관한 문제가 이와 같이 해결된다면 우리는 (61)의 두 가지 가능성 중에 가능성 1을 택하게 된다. 이는 Chomsky(1989, 1992)의 격이론에 따른 것이다. Chomsky에 따르면 모든 구조적은 지정어 핵일치관계에 의해서만 부여되며, 지배관계 역시 m-통어(m-command)로 정의되고 있어서 지정어-핵 일치도 지배관계의 한 유형이 된다.<sup>9)</sup> 따라서 Chomsky의 경우에는 주격이 부여되려면 격부여자는 격을 부여받을 명사와 지정어 핵 일치관계에 있으면서 동시에 지배관계도 형성해야 한다.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여지게 되면 고대영어에서는 주어에 부여되는 격이 지정어 핵일치에 의해 시제핵에 의해서, 특히 2.2에서 본 바와 같이 시제핵의 명사 자질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으로 봐야 한다.<sup>10)</sup> 가능성 2를 택할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는 (41)과 같은 보문자가 있는 종속절에서 AGRs<sup>0</sup>가 TP의 지정어를 지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속절의 주어 역시 종속절의 T<sup>0</sup>에 의해 지정어-핵 일치에 의해서 주격을 부여받으며 AGRs<sup>0</sup>는 보문자에 의해 어휘화되므로 주격부여에는 무관한 것으로 봐야 한다.

#### 4.2. 목적격 부여

한편 (36)에서의 영어나 불어에 대한 설명과는 달리 고대영어에서는 목적격부여는 논리형태 이전단계에서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고대영어의 목적격은 구조적이 아닌 사격(Obligive

9) 한편 Rizzi(1988, 1991)는 어휘핵은 m-command에 따른 지배관계에 놓이고 기능핵은 c-command에 따른 지배관계에 놓인다는 주장을 한다.

10) 구조적 부여시 인접성 조건(Adjacency Condition)은 별도로 가정될 필요가 없다. 실제 고대영어에서는 T<sup>0</sup>이 그 지정어 위치와 인접해 있지도 않다.

Case), 즉 내재격(Inherent Case)이다. 다음 예문에서는 목적어가 소유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 (62) a. Nu ic *pyse* *Alexandres*(gen) her gemyndgade, cwæd Orosius  
 'Now I this Alexander here remind said Orosius'  
 (=now, said Orosius, I remind (of) this Alexander)
- b. þonne ic *his*(gen.) geþencean sceal  
 'when I him think shall'  
 (=when I shall think (of) him)

그러나 고대영어의 목적격이 모두 내재격은 아니었으며 대격은(최소한 일부의 대격만이라도) 구조적으로 봐야한다.

Kemenade(1987)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서 고대영어에서도 목적격과  $\theta$ -role 사이에는, 분리현상이 있었으며 따라서 고대영어의 목적격중 일부 대격은 구조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구조격상의 대격(structural accusative case)이라고 부르고 있다.

- (63) Se ealdorman (nom.) sceal lætan *hiene selfne* (acc.)  
 'The ruler shall let [<sub>S</sub> himself(acc.)  
 gelicne his hieremonnum.  
 equal his subjects'  
 (=The ruler must put himself on the same level with his subjects)

Kemenade는 위의 예문을 I believe John to be honest 같은 예외적 격부여구문(exceptional case-marking construction)으로 파악하고 목적어인 *hiene selfne*가 *John*처럼 종속절내의 술어로부터  $\theta$ -role을 부여 받으면서도 목적격은 주절동사에 의해 부여받는 것으로 본다. 그렇게 되면 이때의 대격은  $\theta$ -role과 무관하게 주절동사에 의해 부여되었으므로 내재격이 아닌 구조격이 되면서 고대영어에서도 일부 대격은 구조적이었다는 증거가 된다.

고대영어에서도 목적격의 일부는 구조적이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면 그 부여과정은 지정어-핵일치라는 구조적인 조건하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즉 동사가 AGRo의 위치로 핵이동한 후 목적어는 그 지정어 위치로 이동해서 목적격을 부여받는 것이다. 이때 이 이동은 표면어순의 차이를 가져오지 않으므로((39)구조 참조) 격부여가 현대어나 불어에서처럼 논리형태에서 이루어진다고 봐도 되고 그 이전 단계에서 이루어진다고 봐도 될 것 같다. 그러나 목적격부여는 영어와 불어의 경우와는 달리 문자화이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봐야 할 이유가 있다. 즉 우리는 AGRs의 동사자질이 강하다고 가정했으므로 다음과 같이 AGRo의 동사자질도 강하다고 봐야하며 따라서 동사가 문자화 이전에 AGRo로 이동해서 목적격을 부여해야 하는 것이다.

- (64) AGRo의 동사자질에 대한 매개변수

	현대영어, 불어	고대영어
AGRo의 동사자질	weak	strong

위와 같은 논의는 'AGRs와 AGRo는 같은 성격의 범주이므로 형태론적 자질의 강·약 또는

동일한 것으로 본다'는 Chomsky(1989, 1992)의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고대영어에서 구조적 대격(Structural Accusative Case)이 있었다는 또 다른 증거는 다음과 같은 수동태 문장이다.

- (65) a. ...swa swa *hit(nom.)* a is.  
 '...as it written is' (=as it is written)
- b. *pa weard se god(nom.) afiged of pære fulan.*  
 'then was the god expelled from the foul  
 anlicnysse.  
 idol'  
 (=then the god was expelled from the foul idol)
- c. *pa wearð se Mihitiga gebolgen.*  
 'Then was the Almighty enraged'  
 (=then the Almighty became enraged)

즉 수동태에서 목적어 명사구가 주어 위치로 이동하는 이유는 기저위치에서는 격을 받을 수 없어서 주어위치로 이동한 다음 격을 받아 명사구에 관한 연쇄조건(Chain Condition), 즉 '모든 명사구는 하나의  $\theta$ -role과 하나의 격(case)을 지녀야 한다'는 조건을 준수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고대영어의 모든 목적격이 사격이라면 기저위치에서  $\theta$ -role 부여와 동시에 목적격이 부여되므로 주어위치로 이동할 필요가 없게되므로, 왜 수동태 문장이 가능한 지를 설명못하게 되는 것이다.

고대영어의 수동구문은 별도 지면을 통해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잠정적으로 '고대영어의 일부 대격은 구조적이었다'고 가정하고 이때 격부여는 AGRO<sup>0</sup>의 동사자질에 의해 지정어-핵일치 하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겠다.

## 5. 맺는 말

고대 영어의 주절과 종속절에서의 어순을 V2이동을 가정하면서 최소이론하에서 설명을 해보았다. V2 이동은 보문자의 자리에 기저생성된 AGRs의 형태론적 자질 때문에 야기되며 따라서 동사의 이동위치가 보문자의 자리임과 그 이동이 의무적인 점이 자연스럽게 설명이 되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다룬 예문은 고대영어 전형적인 예문이어서 여기에 예외가 되는 예문이 많이 있으며 이는 외재화(extraposition)변형 등 또 다른 이동규칙으로 설명이 될 수 있으나 지면상 논의를 생략하였다. 특히 동사가 하나 이상 나타나는 예문에 대해서는(예문(18)처럼) V2 이동 외의 또 다른 동사의 핵이동이 가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별도 지면으로 논의하도록 하겠다.

## References(Selected)

- Chomsky, N. (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Foris Dordrecht.
- Chomsky, N. (1982), *Some Concepts and Consequences of the Theory of Government and Binding*, MIT Press, Cambridge, Mass.
- Chomsky, N. (1986a), *Knowledge of Language*, Praeger, New York.

- Chomsky, N. (1986b), *Barriers*, MIT Press, Cambridge, Mass.
- Chomsky, N. (1989), "Some Notes on Economy of Derivations and Representations" ms. MIT.
- Chomsky, N. (1992), "A Minimalist Program for Linguistic Theory," ms. MIT.
- Haegeman (1991), *Introduction to Government and Binding Theory*, Basil Blackwell, Cambridge Mass.
- Hale, K. (1982), "Preliminary remarks on configurationality," *NELS* 12.
- Kemenade (1987), *Syntactic Case and Morphological Case in the History of English*, Foris, Dordrecht.
- Koopman, H. (1984), *The Syntax of Verbs*. Foris, Dordrecht.
- Koopman, H. & D. Sportiche (1988), "Subject" ms.
- Koopman, H. & D. Sportiche (1990), "The Position of Subjects" to appear in *Lingua*.
- Koster(1975), "Dutch as an SOV language," In *Linguistic Analysis* 1, pp.111-136.
- Lasnik & Saito (1988) *Move- $\alpha$*
- Lieber, R. (1979), "The English Passive: An Argument for Historical Rule Sensibility," *LI* 10.4. pp.667-688.
- Lightfoot (1979), *Principles of Diachronic Syntax*,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latzack, C. (1983), "Germanic Word Order and the COMP/INFL Parameter"
- Pollock, J.-Y. (1989), "Verb Movement, UG and the Structure of IP," *LI* 20 pp. 365-424.
- Rizzi, L. (1990), "Speculations on Verb-Second," ms.
- Roberts, I. (1991), *Verbs and Diachronic Syntax*, ms.
- Sportiche (1988), "Conditions on Silent Categories" ms. UCLA.
- Taraldsen, T. (1983) *Parametric Variation in Phrase Structure*,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Tromsø.
- Traugott, E. (1972) *A History of English Syntax*, Holt, Rinehart and Winston, New York.
- 김석산(1990) 『영어사』, 믿음사, 서울.
- 김석산·김인숙(1982) 『영어사』, 한국방송통신대학, 서울
- 김인숙(1991) 「영어 통사 변화 연구 방법론 考」, 『영학논집』 15,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 박영배(1991) 『영어의 통사변화 : 고대 및 중세 영어 연구』, 지식산업사, 서울.
- 양동휘(1992) "치베 결속 이론의 최근변혁과 그 전망", ms, MIT.